

어린이 책꽂이



▲글치야 학교가자=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을 담은 제이크와 에비게일 남매의 풋발리는 성장통 이야기다. 전세계적인 작가 주디 블룸이 쓴 '글치와 대장' 시리즈 제2탄, 천방지축 팔룡 글치를 따라가다보면 언제 웃음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 <시공주니어·7천500원>



▲세상의 바보들=달력장수 아내의 생각 없이 무조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 하다가 낭패를 봤고, 황부자는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 폐에 자기 가 넘어간다. 과연 누가 진짜 바보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서툰 다섯편의 재미난 바보 이야기를 담았다. <한림출판사·9천500원>



▲철이에게=우리말을 바로 쓰는 일에 평생을 바쳐온 고(故) 이오덕 선생님의 동시 42편을 엮은 그림동시집. 선생님의 시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참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소망, 모든 생명이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처음주니어·9천500원>



▲걱정마, 정말 정말 조심하게!=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난 토마토 절대 안먹어'의 주인공 찰리와 롤라가 펼치는 새로운 이야기. 친구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예쁜 마음을 갖게 한다. <국민서관·9천원>



▲전래놀이=마당이나 골목 어귀, 산과 들 가리지 않고 동무들과 뛰고 구르던 옛날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다. 자치기, 비사치기, 고기잡이, 토끼몰이처럼 요즘 아이들이 잘 모르거나 해 보지 못한 전래놀이를 그림과 함께 담았다. '겨레전통도감' 시리즈 두번째 책이다. <보리·3만5천원>



▲빵이 빵 터질까?=빵이 부푸는 과학 원리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지식그림책이다. 밀가루와 효모·물·소금 등 여러 재료를 섞고 힘 있게 치대며 반죽을 했다. 그 뒤 온도도 습도도 맞추고 1시간 정도 놔둬니, 반죽 안의 효모가 마법을 부리기 시작한다. <웅진주니어·9천500원>



▲마법의 독서치료사=지식이 있고 교훈이 있고 상상력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인생이 있다. 책에 나오는 독서 치료사는 어린 손님에게 그냥 책만 읽어 줄 뿐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 설득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게 해준다. <주니어김영사·8천900원>

▲들루와 선생님의 꽃밭=2001년 미국에서 출간된 이후 선생님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비유로 손꼽히며 큰 사랑을 받은 에디트 파투의 작품. 꽃씨를 뿌리던 준비단계에서부터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한 1년간의 이야기다. <예문·9천500원>

스트레스 받으면 암도 쉽게 걸린다



피부아래 근육들, 인체의 인연을 지지해주는 근육들은 완전히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도 감정을 드러내는 얼굴표정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으로 누구든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

바디북

데이비드 보더니스 지음

음악일 때마다 200개가 넘는 근육이 흔들리고, 해마다 체중 때문에 떨어져 나오는 죽은 피부 조각들이 18kg가량 된다.

또 입 안에는 1억 마리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살고 있다. 매일 잠자리에서 일어나 밥을 먹고,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어려운 과학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는 데이비드 보더니스가 우리 몸의 비밀을 밝힌 '바디북(The Body Book)'을 냈다. 인간이 하루를 살면서 겪는 몸의 변화를 통해 우리 몸의 복잡한 풍경과 아름다움을 알려준다.

저자는 기상, 밥 먹기, 걷기와 휴식, 더위와 추위, 성적 욕망과 임신 등 신체활동에 따른 몸의 변화를 다양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또 두려움과 노여움, 통증과 질병, 근심과 스트레스 등 정신활동에 따른 신비로운 현상들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한다.

가령 인간이 잠자리에서 깨기 위해 머리를 들어올릴 때는 뇌와 두개골의 충돌을 막기 위해 뇌척수액 주머니가 찌그러진다.

또 두 발로 바닥을 딛고 서기 위해서 등뼈는 'S'자로 휘어지며 힘



겹게 체중을 견딘다. 이 과정에서 대위된 체온으로 발생하는 상승 기류는 몸에서 떨어져 나온 피부 조각들을 공중으로 날린다.

음식을 먹는 것도 수많은 조직의 운동과 조화를 통해 가능하다. 잠은 주로 중뇌에 집중된 각성 체계 신경망인 망상체의 이완으로부터 시작된다. 망 같은 수직의 층들이 서로 뒤섞인 곳의 한가운데서 세로토닌 분자들이 흘러나오고, 몸의 세포들은 천천히 멈추게 된다. 이 상태가 되면 잠에 빠져든다.

천사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잔다르크의 몸의 변화를 설명한 대목도 흥미롭다. 저자는 잔다르크는 심한 이명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명은 한쪽 귀에서 발생하며, 빛이 번쩍거리는 증상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잔다르크의 재판 과정에서 그녀가 영국의 종교 재판관들에게 "같은 방에서 불빛이 번쩍거리는 것이 보였으며, 이후 어지러워 주저앉았다"고 진술 한 점 등을 들어 그의 이명 증상을 설명한다.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도 놀랍다. 저자는 "사방에 흩어진 먼지 수비수들은 지속적으로 사멸하고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근심과 스트레스가 그들의 생수를 지체하게 해 땅이 병들게 되는 까닭이다"면서 "감기에도 더 많이 걸리고, 독감도 더 걸리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심지어는 암도 그럴 것이다"고 경고한다.

다양한 세포의 모습, 수정란, 몸의 열 변화를 찍은 사진 자료를 곁들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생각의 나무·2만9천원>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소설 기본 작법 등 소개

... 소설 쓰는법

한승원 지음



우리시대 대표 소설가 한승원(70)이 소설가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소설쓰기 방법을 안내하는 책 '한승원의 소설쓰는 법'을 출간했다.

'한승원의 글쓰기 교실', '한승원의 글쓰기 비법 108가지' 등을 통해 글쓰기 기법을 전수했던 작가가 이번엔 본격적으로 소설 창작론을 들고 왔다.

책은 소설의 정의에서부터 소설의 기본작법, 신춘문예 당선작 및 베스트셀러 분석까지 소설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

좋은 문장 쓰는 법은 물론, 등장인물의 갈등과 대립, 소설쓰기에서의 '장치', 수사법, 소설에서의 예타시즘, 한국소설의 뿌리, 소재찾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설가의 상품성' 등 총 27강의 구성을 통해 한 편의 소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두루 설명하고 있다.

책에는 소설 쓰기의 비법들을 구체적인 소설 속 문장들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김훈의 '칼의 노래', 박현욱의 '아내가 결혼했다', 코백 매카시의 '로드', 탐 보울러의 '리버보이' 등 국내외 작가들의 베스트셀러 소설에서 '배워야 할 것'을 분석하기도 했다.

<랜덤하우스·1만 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슈만을 둘러싼 미스터리 픽션

A장조의 살인

몰리 토고브 지음



'다빈치 코드' 등 그림을 소재로 한 픽션은 많지만 고전음악이 모티브가 되는 픽션은 그리 많지 않다.

캐나다 소설가 몰리 토고브가 쓴 'A장조의 살인'은 슈만과 그의 부인 클라라, 브람스, 리스트 등 19세기 유럽을 사로잡았던 음악가들이 등장하는 미스터리 픽션이다.

독일 뒤셀도르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소설 속 화자는 뒤셀도르프 경찰청 프라이스 경위. 음악회에 가는 길 좋아하고, 직접 피아노를 배울 정도로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프라이스는 어느날 뒤셀도르프 교향악단 지휘자이자 유명작곡가인 슈만으로부터 'A음이 계속 들려 견딜 수 없다'며 사건을 의뢰받는다.

여기에 클라라와 브람스의 스캔들이 더해져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슈만의 일대기를 쓰던 음악평론가 게오르크 아델만이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유능한 작곡자였지만 말년에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했던 슈만, 장인과 범정 소송까지 진행하며 결혼한 클라라와의 애증 관계, 클라라와 브람스의 사랑, 또 다른 천재였던 리스트와 슈만의 대립 등 음악사에 등장했던 이야기들이 픽션과 얽히면서 흥미로움을 더해준다. <살림·1만 2천원>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작통 천국' 중국의 양면성

이큐를 위한 변명

이상수 지음



세계적인 불량 식품 파동을 일으키고 '작통 천국'의 오명속에 놓여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거부하고 21세기 새로운 패권국으로 발돋움 하는 중국.

제자백가 철학을 전공하고 현대 중국사회를 연구해온 이상수 씨가 대륙이라는 환경이 남긴 중국인의 기질과 심성을 중국의 현재와 과거를 통해 풀어낸 중국 이해서 '이큐를 위한 변명'을 냈다. 중국인의 양면성을 해부한 중국판 '국화의 칼'이라 할 수 있겠다.

저자는 '대륙 기질'과 '이큐 기질'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기질을 중국인의 심성을 이해하는 키워드로 선정하고 이를 면밀히 짚어 나간다. 단단한 인적네트워크를 위해 이방인을 너그럽게 대하는 '대륙 기질'과 냉혹한 권력 앞에 바보 같은 웃음을 짓고 마는 '이큐 기질'은 중국의 역사를 관통하는 씩씩 수 없는 역사의 흔적이라는 것이다.

중국을 움직여온 거대한 힘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중국인의 정신을 어떻게 바꿔왔을까, 책은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 중국문명을 움직여온 매커니즘을 통찰함으로써 5천년간 지속된 중국인의 세계관을 드러낸다.

<웅진지식하우스·1만 6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Support' (작은 만남 큰 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 Gwangju. Includes categories like 'Future Doctor' (미래한의원), 'Wedding Dress' (웨딩패리스), and 'Real Estate' (부동산). Each listing includes the business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